



9 차 총회

2017 년 6 월 29 일-7 월 16 일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사목적 모성의 예언적 선물

소식지 3

2017 년 7 월 12 일

식별에서 선택으로

1. 준비를 위한 시간

10 일부터 총회 참석자들은 함께 영신수련을 하며 시작했던 개인 식별의 여정을 진리와 함께 보도록 요청 받았습니다. 진행자인 데레사 수녀는 가능한 한 보다 더 복음적인 방법으로 섬세하고 적절하도록, 총회의 이 단계에서 실행할 방법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내적으로 자유로운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파괴적이기 까지 하는 생각들의 힘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습니까? 깨어있게 하는 보루는 우리를 가르치는 교부들이며,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게 하는 “신적 기억”입니다. 타인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사랑의 행위들을 통하여 타인을 돌보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많은 걱정들을 상대화하는 것과 모든 것을 본질적인 것으로 연관 짓는 것을 배우기 위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 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보낼 수 있는 방향타를 두려움 때문에 내어 주지 않도록 자신의 기관실 입구 문을 지키는 것을 돕는 생활양식을 갖는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우리가 걸어야 할 여정에 대해 대조를 계속하도록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형제적이고 상호존중 하는 대화를 했으며, 침묵 안에서 이루어진 공동 성체조배는 저녁 성무일도를 할 때까지 기도의 분위기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2. 총장 선출

11 일 화요일,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른(에페 4,13), 성 베네딕도 기념일, 성인께 오늘 해야 할 일정을 미사 중에 맡겨드렸습니다.

아침에 우리는 총장 선출을 위해 총회 회의장에 모였습니다. 책임성과 믿음을 갖도록 수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회 비서인 뿌리수녀는 투표를 하기 전에 총장 선거 방식과 자격에 관한 생활규칙 121 조와 135 조를 읽었습니다.

먼저 성령강림을 청한 후, 총회 참석자들의 이름을 부른 직 후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제 9 차 총회는 아민타 사르미엔토 수녀를 총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바오로 가족 수도회 총장들이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 왔습니다.

3. 평의원 선출

11 일 화요일 오후와 12 일 아침에는 지침의 진행과정을 듣고 평의원들을 선출했습니다. 아침 늦은 시간에 네 명의 평의원들을 선출했습니다:

발링가사 브렌다수녀님- 영어

로셀 마리사수녀님- 스페인어

파스콜라토 산드라수녀님- 포르투갈어

피아이 루치아 수녀님- 이태리어

총회 참석자들은 이 단계를 마친 후 성당에 모여 주님께 감사와 찬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민타 수녀와 그의 평의원들을, 그들의 직무를 통하여 어머니의 마음으로 수도회에 봉사하며, 교회와 여정 안에서 자매들과 바오로가족과 항상 더 생생한 친교의 관계를 맺고, 길 잃고 헤메는, 그러나 기대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시대의 인류의 필요들을 잘 경청할 수 있도록 **양들의 큰 목자**께 맡겨드립니다.

총회소식 전달비서,
안젤라 나폴리 수녀